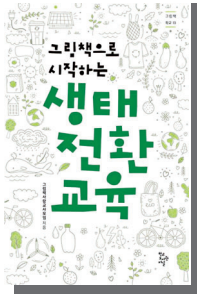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 공감

그림책 연계 생태교육 서적 2제
어린이 알아야할 환경문제 분석
‘생태 감수성’ 독서 후 활동 제시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생태전환교육
그림책사랑교사모임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
이태숙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그림책을 활용한 생태교육 활동을 담은 책 2권이 학교도서관저널에서 출간됐다. 그림책 사랑교사모임의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생태 전환교육’과 이태숙 교사의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이다.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생태전환교육’은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의 가치를 널리 알려 온 그림책사랑교사모임이 그림책과 연계한 환경 교육 활동을 담아낸 책이다.

뜨거워지는 지구, 환경 오염은 왜 발생할까?,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는 무엇을 사고 먹나?, 에너지와 도시 이야기 등 5가지 큰 물음을 통해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환경문제는 무엇인지 분석한다.

지구 온난화, 기후 난민, 쓰레기 처리, 동물 보호, 소비 축소, 재생 에너지 등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이슈를 소개하고 교사는 이같은 이슈를 포착, 인식과 행동을 모두 바꾸는 ‘생태 전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5가지 주제별 62권의 그림책을 통해 독후감 쓰기, 포스터 그리기 같은 일반적인 활동이 아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깥 효과적인 독후 활동은 없는지 살펴본다. 동시에 62권 각각에 해당하는 효과적인 독후 활동을 소개하면서 교사들에게는 다채로운 규모와 종류의 독서 활동을 전달한다.

그림책사랑교사모임은 여는 글을 통해 “학생 세대가 어른이 됐을 때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의 노력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림책 환경 수업이 작은 씨앗이 되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구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은 서월원효초등학교 이태숙 교사의 세번째 그림책 서적이다.

‘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감 수업’과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의 이태숙 교사의 이번 서적은 생태 감수성 회복을 주제로 했다. 환경 문제는 너무 큰 주제라 아이들 역시 당장 본인 문제로 느끼기 쉽지 않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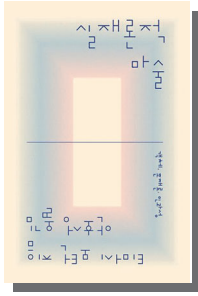
작품 속 상황과 주인공의 심정을 직관적으로 보여 준다. 아이들은 그림책을 통해 지구 온난화, 생물 다양성,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공감하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환경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와 학부모들을 위해 다양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저자가 읽고 선별한 그림책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길러 주기 적절한 독서 후 활동을 선보인다.

이태숙 교사는 “그림책을 활용해 생태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은 피교육자의 마음에 다가가기 쉽다. 그림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서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며 그림책에서 보여준 모습이 현실에서 어떤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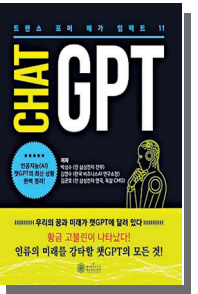
이어 “아이들이 이상 기온과 이상 기후를 직접 느낄 정도라면 지금이 기후 위기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마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한 지구. 이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과 함께 실천에 옮길 때”라고 전했다. /최진화 기자

새책 나왔어요

NEW



◇실재론적 미술=미국의 철학자이자 생태이론가 티모시 모턴의 생태 이론 이야기. 모턴은 인과성이 미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미적 사건은 인간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인간과 화폭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드라마 속 대사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미적 사건은 틈이 새로운 합판 조각을 배어 붙었을 때 일어난다. 미적 사건은 별레가 축축한 흙에서 배어 나올 때 일어난다. 미적 사건은 거대한 객체가 중력파를 방출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모턴은 미적 차원은 인과적 차원이라고 말한다. 갈무리.



◇챗GPT 메가 임팩트 11=인류의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다.빌게이츠는 일생에서 ‘혁명적’이라는 단어의 두 기술을 봤는데 그중 하나가 챗GPT라고 말한다. 챗GPT가 쏘아 올린 새로운 역사의 시작, AI의 혁신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는 무엇일까? AI의 발전은 이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자리가 변화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며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바뀔 것이다. 케이미라코닝.

빛나는 시어로 비춘 삶의 내밀한 풍경



모래는 미래
정끝별 지음
창비

시 창작과 평론 활동을 병행하며 독특한 상상력과 빼어난 언어 감각으로 독보적인 시 세계를 다져온 정끝별 시인이 일곱번째 시집 ‘모래는 미래’를 펴냈다.

시인은 경쾌한 어조와 그윽한 서정이 결합된 작품으로 삶의 비밀한 일상과 가족·여성·사회·생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유의 유머와 따뜻한 감성이 어우러진 목소리로 삶의 비애와 “도저히하고도 낭창낭창한 슬픔”(이별을, 추천사)을 감싸안는 시편들이 공감을 자아내고, 치밀하게 구성된 에너그램 형식의 시편들은 시 읽기의 깊은 맛을 음미하게 만든다.

가족·여성·사회·생태 등 시 52편

“언어적 조율을 통해 일상의 삶, 평범한 사람, 퇴색한 사물의 이면에서 숨은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준다”(심사평)라는 찬사를 받으며 2021년 현대시작품상을 수상한 ‘이 시는 세계의 새 시입니다’를 포함해 52편의 시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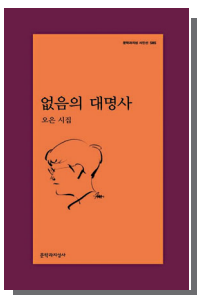
책 말미에 실린 황인찬 시인의 해설에서는 단정하면서도 개성적인 시인의 언어로 이번 시집에 대한 곡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나주 출신인 정 시인은 이화여대 국문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문학사상’ 신인상 시 부문에 ‘갈레의 바다’ 외 여섯편의 시가, 199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서늘한 패러디스트의 절망과 모색’이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자작나무 내 인생’, ‘흰 책’, ‘삼겹살 자 복사빛’, ‘은혜이가’, ‘붙이고 찢이고 덤입니다’ 등이 있다. /최진화 기자

텅 빈 대명사 속 특별한 이야기들



텅 빈 대명사
오은 지음
문학과지성사

“그는 맞춤법에 약했다 첫 직장엔 입사할 때까지 ‘이래라저래라’가 ‘일해라 절해라’인줄 알았다. (중략) 일해라 절해라 부어라 마셔라... (중략) 일하고 절하고 붓고 마시다 보면 회사의 숙주님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에서)

젊은 세대의 문해력을 문제 삼으면서 농담처럼 떠도는 맞춤법 실수 얘기가 오은의 시에서는 웃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된다.

“열심히 일하다가 상사가 지나가면 자리에서 일어나 깎듯하게 절하라는 거 아니었어? 그는 그런 줄 알았다 매일 일하고 절했다” 거침없는 언어유희와 전복적 사유를 감행

대명사 소재 58편의 시 수록

해운 시인 오은이 여섯 번째 시집 ‘텅 빈 대명사’ (문학과지성사)를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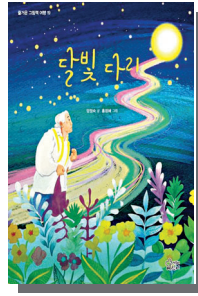
수록시 ‘그’의 주인공은 매일 “일하고 절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여느 젊은 직장인들을 대변하는 인물.

‘그’는 맞춤법을 몰라 동료들의 비웃음을 사는 어리숙한 직장인이긴 하지만, “누구에게 보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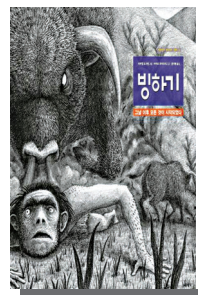
시인이 ‘나는 이름이 있었다’ 이후 5년 만에 펴낸 이번 시집에도 이처럼 번득이는 언어 유희와 전복적 사고는 여전히 빛난다.

이번 시집의 1부에선 지시대명사, 2부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제목으로 한 시들이 수록됐다.

‘그곳’이라는 제목의 시 3편, ‘그것들’ 6편, ‘그것’ 16편, 그들 ‘9편’, ‘우리’ 9편, ‘너’ 4편 등 총 58편이다. /연합뉴스



◇달빛다리=이산가족의 이야기. 현수 할머니는 남편과 생이별을 한 채로 63년을 살아왔다. 그사이 할아버지는 북에서 결혼해 또 다른 가족의 가장이 됐다. 현수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할머니와 아빠를 따라 북으로 올라간다. 아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할아버지는 현수와 아빠가 절을 하자 눈물을 흘린다. 만남은 잠시, 또다시 기억 없이 헤어진 채로 현수 가족은 남으로 내려온다. 가문비어린이.



◇빙하기=약 3만 년 전, 지구 마지막 빙하기의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았던 원시인들의 이야기. 매머드와 털코뿔소같이 거대 포유동물들이 번성했던 선사시대대자연이 장엄하게 펼쳐진 이 그림책 속으로 여행하다 보면, 인류의 진보를 앞당긴 위대한 순간과 마주하게 된다. 들소 때 사냥에 실패한 한 무리의 원시인들에게 굶주림이나 부상보다 더 참기 힘든 일은 다가오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다. 지양어린이.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 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